

북한 사회복지 연구 경향에 대한 분석 - 새로운 접근 방향과 모형 -

이 철 수(서울장신대·장안대학 강사)

I. 들어가며

본 연구의 목적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북한 사회복지에 대한 기존 연구를 분석하여 그 함의를 발견하고,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접근 방향과 모형을 제시하는데 있다. 한편, 본 연구의 핵심 검토대상은 기존의 국내연구 중 북한의 소득보장제도와 의료보장제도 연구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 서비스에 해당하는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다. 이에 따른 서술 순서는 먼저 지금까지 진행된 국내의 북한 사회복지 연구를 냉전시대와 탈냉전시대로 나누어 고찰하여 연구 경향과 한계, 공통점을 파악하고, 다음으로 이를 토대로 새로운 접근 방향과 접근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북한 사회복지 연구 경향

1. 기존 연구 경향 : 냉전시대와 탈냉전시대

먼저 북한 사회복지에 대한 냉전시대의 대표적인 연구는 박길준(1972)¹⁾ 등의 연구가 있다. 이 시기의 연구를 요약하면, 본 연구가 검토한 냉전시대의 총 9개 연구 중 북한

사회복지만을 연구한 논문이 4편, 남북한 사회복지를 비교 연구한 논문이 3편, 거시적 사회복지 정책방향을 제시한 연구가 2편이다.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이 시기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에 관한 연구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인은 물론 남북한의 장기적인 갈등 관계로 인해 사회복지 통합 연구에 접근할 시대적 배경이나 환경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통일과정상의 제도통합의 하나인 사회복지 통합연구는 무엇보다 '통일'에 대한 '정서적 체감'이 존재할 경우에 활발한 연구를 하게 된다. 때문에 냉전시대의 남북한 사회복지의 통합 연구가 미진한 이유는 한반도 통일이 대한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은 시대환경 때문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북한 복지모형·모델연구가 전무한 원인도 이와 동일하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1990년대 이후 탈냉전시대의 북한 사회복지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는 김진수 외(1992·1993·1997·2002)등의 연구가 있다.²⁾ 이 시기의 연구는 북한의 사회복지(제도)를 연구대상에 따라 비교·분석하고, 나아가 각종 사회복지 제도 통합·모형 등을 연구하는 다양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남)북한 사회복지에 대한 접근을 여러 방면으로 시도하였다고 하겠다.

특히, 연구 경향의 중대한 변화로는 냉전시대 연구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연구와 모형·모델연구 단계까지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주지하다시피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시대적 환경이 냉전시대에 비해 상당부분 호전되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 연구가 검토한 탈냉전시대의 총 47개 연구 중 ①북한사회복지연구 13편 중 제도연구가 8편, 실태연구가 5편(A형 연구), ②남북한 사회복지 비교연구 7편 중 포괄적 접근을 한 연구가 6편, 부문적 접근을 한 연구가 1편(B형 연구), ③남

1) 여기에 대표적인 연구로는 박길준(1972), 박동운(1972), 양재모(1972), 전용렬·박길준(1972), 유인화(1973), 김형식(1986), 김용식(1987), 홍도열(1988), 문옥륜(1989) 등의 연구가 있다.

2) 여기에 대표적인 연구로는 문옥륜(1990), 최일섭(1990), 김연명(1991·1992·1994·1995·1999), 오정수(1991a·1991b·1993·1996·2000), 김수환(1991), 김영중(1992), 김진수(1992·1993·2002), 이상은(1992), 변중화 외(1993), 성경룡(1993), 홍종득(1993), 황진수(1993), 김영운(1994), 박순성(1994), 박진·이유수(1994), 박진(1994), 정경배(1994), 김연명·김형식(1995), 김형식(1995·2000), 정기원 외(1995), 박진(1996·1997), 김영치(1997), 나병균(1997), 노용환·연하청(1997), 박종삼 외(1997), 임재형(1997), 노용환(1997), 김상균·진재문(1998), 노용환(1998), 조남훈·노용환(1998), 박종삼 외(1999), 조홍식(1999), 강복수 외(2000), 성기호(2000), 문옥륜(2001), 등의 연구가 있다. 한편,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 북한의 노인·여성·장애인·아동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연구도 이와 대동소이하게 이루어져 왔다.

북한 사회복지 비교와 통합을 연구한 8편 중, 포괄적 접근을 한 연구가 7편, 부문적 접근을 한 연구가 1편(C형 연구), ④남북한 복지 통합모형·모델 연구 7편(D형 연구), ⑤기타 이외 간접적으로 관련된 연구가 12편이었다(E형 연구).

물론 이러한 탈냉전시대의 연구들이 냉전시대의 연구를 진일보시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양·질적 연구의 팽창에도 불구하고 한계로 지적되는 것은 여전히 북한 사회복지의 실태에 대한 보다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물론 북한체제의 폐쇄성(close system) 때문에 자료접근이 원활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 객관적·구체적인 지표가 발견되기 어려운 연구환경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탈냉전 시대의 북한 사회복지 연구는 국내에 소개된 서술적 문헌 연구에만 치중·그래서 다소 중복된-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부문적으로 북한 사회복지의 실태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북한 사회복지의 실태를 파악하지는 못했다고 하겠다.

요약하면, 탈냉전시대는 냉전시대의 경직된 연구환경을 벗어나 다양한 연구를 시도하여 성장하였지만, 아직까지 실증적인 실태연구 부문에서는 그리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겠다. 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냉전시대의 북한 사회복지에 관심과 열의는 냉전시대를 능가하여 지금 현재 다양한 부문에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겠다.

2. 기존 연구의 함의 : 경향·한계·공통점

지금까지의 논증을 중심으로 기존연구의 경향과 한계, 그리고 공통점을 살펴보면, 먼저 남한의 북한 사회복지 연구는 크게 다섯 가지의 연구 경향으로 구분된다.

첫째, 북한 사회복지만을 포괄적·부문적으로 접근하되 제도나 실태를 연구·분석한 것이다. 여기에서 제도연구의 경우, 북한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령과 각종 제도에서 명시한 내용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실태연구의 경우, 제도연구의 자료를 토대로 이를 검증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남)북한 사회복지를 각종 제도에 따른 법령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여기에서 북한 사회복지란 남한 사회복지와 유사한 부분의 제도들을 중심으로 하여 남북한 사회복지를 비교(between unit comparison)·분석을 한 것이다. 아울러 상술했다시피, 대부분의 연구가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통일한국을 가상하여 남북한 사회복지의 통합 방안을 연구한 것이다. 이는 남북한 사회복지를 통일(통합)과정상의 문제로 설정하여 각종 사회복지의 부문별 제도통합

을 방안을 연구한 것으로 두번째의 연구를 보다 더 진척시킨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 사회복지 통합은 두 번째 연구 경향과 마찬가지로 남한과 유사한 제도를 중심으로 포괄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넷째, 거시적 수준의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 모형을 연구·제시한 것이다. 이는 남북한 비교·통합의 연구 과정, 즉,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연구의식을 관통한 주제로서 통일한국 복지모형의 좌표를 설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역시 현행 남한의 복지모형을 바탕으로 북한 사회복지를 흡수·통합하는 경향이 있다.

다섯째, 북한 사회복지의 이념이나 전개과정, 운영체계 등을 연구한 것으로 이는 (남)북한 사회복지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문을 연구한 것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연구 경향의 한계로는 첫 번째 연구 경향의 경우, 북한 사회복지의 제도연구를 시도한 대다수가 문헌 중심의 연구를 한 것이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재 북한의 사회복지 실태이다. 물론 부문적으로 실태연구가 이루어졌지만, 대부분의 경우 북한의 보건의료제도를 중심으로 한 실태연구이다. 따라서 이제는 전반적인 북한 사회복지의 실태연구에 접근해야 할 시점이라 판단된다.

두 번째 연구 경향의 경우, 주로 남한의 국민연금·산업재해·보건의료·공공부조 제도를 중심으로 비교연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사회복지는 이외에도 국가배급제와 주택과 교육 등이 포함된 광의의 사회복지 개념이다. 이에 북한의 사회복지에는 비교 연구한 복지제도 이외에도 다양한 제도들이 존재하고 있다. 때문에 북한 사회복지의 비교연구의 접근은 남한과 유사한 사회복지 제도만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인민시책제도 내의 국가적 (추가)혜택을 포함한 범주를 재설정하여 그 셋업(SET-UP)을 달리해야한다고 판단된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연구경향의 경우,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 방안과 모형을 제시하지만 대부분의 통합 연구가 남한에 의한 정치적 흡수 통일을 전제(presupposition)로 하여 현존하는 북한 사회복지를 종속변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물론 이것이 가장 현실적일지는 모르나, 이러한 연구는 남한 사회복지 제도의 일방적인 강제가 전제된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연구는 통일한국 사회복지 제도의 시너지 효과를 상쇄시키고 있다.

반면,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고무적인 현상은 연구경향의 패턴이 다양해졌다는 것이다. 즉, 역설적으로 통일한국을 대비해 볼 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 통합방안과 통합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기존연구의 경향이 (남)북한 사회복지 연구 → 남북한 사회복지 비교연구 → 남북한 사회복지 비교와 통합연구 → 통일한국 사회복지 통

합모형 연구 등의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동시 진행됨에 따라 현재는 연구의 체계를 일정 부문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북한 사회복지와 관련된 기존 연구의 경향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 첫째, 북한 사회복지를 북한의 공식문헌과 원전을 중심으로 한 연구 사례가 높지 않다. 둘째, 분석대상과 단위를 각 제도별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고 있지만 남한 사회복지 제도를 중심으로 북한 사회복지에 대한 연구에 접근하고 있다. 셋째, 이러한 남한 사회복지를 중심으로 한 비교·고찰이 남북한 사회복지 제도통합(모형) 연구에도 일정한 변형 없이 접근·적용되고 있다. 넷째, 남북한 사회복지의 통합은 통일방식과 통일속도를 중요한 변인에 놓지 않고 연구하고 있다. 다섯째, 실증적인 북한 사회복지제도-부분적이든 포괄적이든-의 실태를 연구한 사례가 많지 않다. 여섯째, 무엇보다도 통일한국의 출현을 가정한 문제의식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북한 사회복지에 관한 기존 연구의 경향을 분석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북한 사회복지 연구 경향

연구 분류	분석 단위	분석 방식	분석 대상	접근 방식	문제 의식
① 북한 사회복지제도 : 제도·실태	북한 사회복지 관련 공식 법령과 기존 문헌 중심	서술형 문헌연구와 부분적 실태 연구	남한과 유사한 법령 내용 중심 검토	대체로 포괄적 접근	통일한국 대비
② 남북한 사회복지 비교 : 포괄·부분적					
③ 남북한 사회복지 비교와 통합 : 포괄·부분					
④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모델연구 : 포괄					
⑤ 기타 연구					

3. 비판과 성찰 : “북한” 그리고 “사회복지”의 딜레마

무엇보다도 “북한 사회복지” 연구의 성격은 ‘북한’이라는 국가 자체와 ‘사회복지’라는 두 가지 주제를 동시에 분석해야만 한다. 따라서 북한 사회복지란 연구 주제가 가지고 있는 연구범위는 다소 중층적인 구성을 하고 있다고 하겠다. 즉 연구대상인 ‘북한 사회복지’가 언필칭 한가지의 주제로 보이지만, 연구의 탐색 과정에는 북한과 사회복지라는

두 가지의 주제가 상존해 있는 영역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북한 사회복지에 대한 접근과정에는 선결해야 할 과제들이 잠복해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견지에서 지금까지 기존 연구의 경향 검토를 통해 제시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인 북한 연구의 접근법 내지는 방법론³⁾에서도 나타나듯이 북한 사회복지에 관한 연구 역시 외재적-전체적 접근법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즉, 기존 연구는 대체로 북한 사회에 대한 전체주의적인 특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때문에 이러한 연구 결과의 대부분이 북한 사회복지에 대한 내재적 접근이 다소 결여된 채 외재적인 분석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한계는 북한체제 자체의 폐쇄성에 따른 자료접근의 한계에도 그 원인이 있지만, 동시에 연구자들의 북한 자료와 정보 수집, 북한학습이 부족한 원인도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이 때문에 일반적인 북한 연구자에게 나타나는 연구 인식론의 문제가 북한 사회복지에 대한 연구자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기존의 연구들이 어떻게 하면 남한의 사회복지 제도를 북한에 적용할 수 있는가에 기본인식이 맞추어져 있어, 남한 사회복지제도의 미흡함을 간과하는 동시에 북한 사회복지제도를 상대적으로 과소 평가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조홍식, 1999: 220). 따라서 이러한 북한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 역시 비균형적 시각 내지는 접근의 원인이 되었고, 이는 연구자의 태도와 북한에 대한 선입견과 국내의 북한연구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 판단된다.

셋째, 분석대상에 있어, 북한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령 중심의 분석에만 치중하여 북한 사회복지의 실제적(substantive) 현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특히 북한의 사회복지 관련 법령을 제외한 공식 원전에 대한 학습과 분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북한을 포함한 사회주의 국가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 주로 사용되는 방법인 크렘리노지(cremlinology)와 해당국가의 문헌분석을 통한 독해법(reading method) 학습을 일정부분 달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넷째, 분석방법에 있어, 북한의 사회복지 관련 법령 중심의 서술적 문헌연구에만 치중하여 객관적인 실태연구에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과거에는 실태접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최근에는 중국이나 남한 내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기법으로 연구한 자료-생활 실태자료 등-들이 발표되고 있다.

3) 대표적인 북한 연구방법론에 관한 연구는 강광식(1996), 강정구(1996), 김정인(1998a·1998b·1994·1993), 김연철(2001·1998·1995), 박명림(1995), 서동만(1998), 송두울(1995a·1995b), 오기성(1996), 이종석(1997·1995), 최완규(1995) 등이 있다.

Ⅲ. 새로운 접근방향과 모형 모색

1. 새로운 접근 방향 : 우선 과제

위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접근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첫째, 접근방법에 있어, 북한 사회주의 체제 '안'의 눈을 통한 내재적-비판적 접근을 통해 북한 체제 분석을 선결한 가운데에 북한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와 비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접근방법이 북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전제됨에 따라 북한 사회복지를 설명하는데 있어 보다 더 체계적이므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둘째, 인식론에 있어, 북한의 입장에서 다소 유연한 상대주의적 입장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 즉, 첫 번째 지적사항의 연장선상에서 북한 사회복지를 인식하고 이러한 상대주의적인 입장을 고려하여 연구에 임하자는 것이다.

셋째, 분석대상에 있어, 북한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령분석 뿐만 아니라 북한의 공식 원전과 이와 관련된 국내외의 문헌 연구를 동시에 분석·검토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는 앞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지적 사항을 견지한 가운데에서 이를 보다 더 검증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될 것이다.

넷째, 분석방법에 있어, 가능한 문헌연구와 동시에 북한 사회복지의 실태에 접근을 해야 한다. 이에 남한 내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면, 일정부분 그 실태접근이 용이하리라 판단된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새로운 접근 방향

구분	기존 연구 경향	한계	향후 지향성
접근 방법	외재적-전체적 접근	외형적-표피적 결론	내재적-비판적 접근
인식론	남한 중심적 사고	일방주의적	상대주의적
분석대상	법령중심	정태적	북한 원전과 국내외 문헌 연구
분석방법	서술적 문헌연구	실태 접근 부족	문헌·설문 동시연구

2. 새로운 접근 모형의 맥락 : 이념 · 제도 · 현실

현재까지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접근은 주제나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진척되어 왔다. 특히,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접근 중 코르나이는 사회주의를 이념적 사회주의, 현실적 사회주의, 제도적 사회주의라는 세 가지 층위구분을 통해 접근하였다. 이는 무엇보다도 사회주의의 실현여부를 떠나 ‘현실에 존재한 사회주의’를 진단하는 데 높은 설명력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접근은 상호 교차분석이 가능함으로 해당 대상에 대한 실제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복지(제도)는 해당 국가의 이데올로기와 사회제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형성·발전한다.

이에 ‘사회주의 체제인 북한의 사회복지’란,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 내에 존재하고 있는 사회복지의 이념 · 제도 · 현실’이 해당된다. 연구 대상인 북한 사회복지를 코르나이의 구분을 등치하여 ①북한 사회주의 이념 내의 사회복지 이념과 ②북한 사회주의 사회제도 내의 사회복지 제도, ③북한 사회주의 현실 내의 사회복지 현실로 분류된다. 따라서 이는 ‘북한 사회복지 이념’, ‘북한 사회복지 제도’, ‘북한 사회복지 현실’로 치환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논증하면, 첫째, 북한 사회복지 이념은 북한의 통치 이념속에 내재한 이념과 이러한 이념이 정책적으로 승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사회(복지) 제도속의 이념들을 말한다. 여기에는 통치이념인 주체사상, 그리고 각종 사회 제도의 이념적 지향성이 해당된다. 이를 통해, 각각의 이념들이 북한의 사회 구조속에 어떠한 사회복지의 이념적 역할을 하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 사회복지 제도는 북한에 존재했거나 존재하고 있는 각종 사회제도 속에 내재한 제도적 수준의 사회복지 제도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생활상의 1차 분배인 국가 배급제에서 시작하여 각종 인민적 시책과 남한과 유사한 사회복지 제도들이 해당된다. 이에 관련된 사회제도가 어떠한 사회복지적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제도들이 어디로(where to), 어떻게(how to) 진행되었는가를 북한의 사회(복지) 제도 안에서 살펴봐야 할 것이다. 특히, 여기에서의 각종 제도별 분석은 자연스럽게 북한 사회복지 제도의 전개·발달 과정에 대한 분석을 동반하게 된다. 또한 각 제도의 성격규정은 북한 사회복지의 성격이나 복지체제를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북한 사회복지 현실은 북한이 표방한 다양한 사회복지 제도가 현실적 수준에서 그 내용이 ‘현실화’되었는가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문헌상의 레토릭(rhetoric)에 대한 검증과 동시에 현실화된 북한 사회복지 제도의 실태를 판단하는 것이다. 즉, 각종 사회(복지) 제도가 명시한 내용들의 실현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 이념적 수준의 사회복지 이념의 상태와 제도적 수준의 사회복지 제도의 상태, 현실적 수준의 사회복지 현실의 상태에 대한 상호 교차분석을 해야 한다. 물론 세 층위의 범주가 다소 다른 대상과 방법의 접근을 통해 북한 사회복지에 접근한 것이나, 현실적으로 그 관계를 완전히 차단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념적 가치에 따라 제도가 정책적으로 승화되고, 그러한 제도적 배경을 적용함에 있어 그에 따른 현실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즉, 이념과 제도의 양립성과 제도와 현실의 양립성, 이념과 현실의 양립성의 쌍무적 관계는 항시 존재하기 마련이다. 때문에 북한 사회복지의 이념과 제도 및 현실을 상호 검증해야 한다.

이에 위의 세 층위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을 경우, 이념과 제도·현실간에 나타나는 간극을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결국 북한 사회복지 이념에 어떻게 제시되었는가와 이러한 이념이 다시 사회복지 제도에 정책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었는가, 그리고 이러한 복지제도가 어느 정도 현실에 실현되었는가를 순차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접근이라 하겠다.

요약하면, 이러한 세 가지 차원의 접근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첫째, 세 가지 차원의 구분에 따른 접근은 연구대상의 '정상화'를 촉진하게 되고, 둘째, 이에 따른 각 범주별 세 단계 연구는 '객관화'에 기여하고, 셋째, 이들간의 교차분석은 '실체화'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연구과정의 정상화 작업→객관화 작업→실체화 작업은 합리적인 연구 방안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북한 사회복지 접근 방식은 북한 사회복지를 다각적으로 평가·진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V. 나오며

통일한국을 향한 남북한 사회복지에 대한 연구는 현재 진행형의 주제이자 미래완료형의 과제이다. 그러므로 남북한 양자의 사회복지에 대한 연구는 공히 대동소이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이에 남한 사회복지 연구의 경우, 다양한 정보와 실제 접근이 가능하기에 일정부문의 연구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북한 사회복지 연구의 경우, 국내에서 자료의 경로를 찾는 것에 한계가 있고, 이 때문에 정보 수집이나 분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실정이다. 때문에 북한 사회복지를 연구할 경우, 연구자는 본의 아니게 지적 장애인(?) 내지는 표류하는 사색가(?)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사회복지에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극복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인 것이다. 다시 말해 가장 중요한 것은 불가능한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돌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새로운 접근방향과 접근방식을 제시하였다. 먼저 접근방향의 경우 첫째, 접근방법은 내재적-비판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고, 둘째, 인식론은 상대주의적 입장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셋째, 분석대상은 북한의 원전과 국내외 문헌을 비교 검토해야 하고, 넷째, 분석방법은 북한 사회복지의 문헌과 설문조사 연구에 비중을 두고 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를 지도(map)로 북한과 사회복지라는 테제의 “지적 균형”을 유지한 가운데 접근할 경우, 높은 수준의 연구가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다음으로 접근 모형의 경우, 북한 사회복지를 이념과 제도, 그리고 현실로 나누어 접근하여 교차 분석하는 것이 새로운 접근 모형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이를 다시 세부적으로 분류하는 작업은 분명 또 하나의 과제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접근 방향과 접근 모형이 북한 사회복지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으나, 일정부문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이를 통해, 향후에 제기할 문제는 통일 사회복지를 위한 액티(actor)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새로운 사실의 발견을 통해 나타난 현상인 “그래서 무엇을 알고 있는냐”가 아니라 “알고 있다면, 어떻게 현실에 적용하느냐”를 고민할 때인 것이다.

■ 참고문헌

◆ 국내문헌

1. 단행본

- 이종석(2000). 『새로 쓴 현대 북한의 이해』, 서울:역사비평사.
 (1998). 『분단시대의 통일학』, 서울:한울아카데미.
 (1995). 『조선로동당연구: 지도사상과 구조변화를 중심으로』, 서울:역사비평사.

2. 논문

- 강광식(1995). “북한 연구방법론 고찰: 주요 쟁점의 현황과 과제”, 『북한학보』 제9집, 서울:북한연구학회.
 강복수 외(2000). 『남북한의 보건의료』, 서울:아주남북한보건의료연구소.

- 강정구(1998). "북한연구방법론Ⅱ : '내재적 접근법'과 '외재적 접근법'의 상호관계에 관한 일 연구", 『한국정치학회』 학술회의 발표문.
- (1998). "북한연구 방법론 : 재론", 『현대 북한 연구』, 서울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 (1996). "북한사회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통일시대의 북한학』, 서울 : 당대.
- (1994). "북한연구 방법에 대한 새로운 제언", 『역사비평』 제26호, 서울 : 역사비평사, 가을호.
- (1993). "북한연구방법론 I : 내재적 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 『동아연구』 제26집.
- 김상균·진재문(1998). "통일초기의 사회복지 프로그램 및 비용", 『사회복지연구』, 서울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김수환(1991). "북한 사회복지 법제에 관한 고찰", 부산 :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김연명(1999).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통합복지모델 연구", 『사회복지정책』, 서울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1995). "남북한 사회복지 50년의 성과와 전망", 『사회복지정책』, 서울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창간호.
- (1993). "『반반도 냉전체제가 남북한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1992). "북한의 소득보장제도 연구",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제4집, 서울 : 한국사회정책연구원.
- (1991). "북한의 사회복지제도에 관한 연구 : 소득보장제도와 의료보장제도를 중심으로" 『북한·통일연구논문집 VI』, 서울 : 통일원.
- 김연철(1998). "북한연구에서 인식론 논쟁의 성과와 한계", 『현대 북한연구』, 서울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 (1998). "1950년대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자", 『1950년대 남북한의 선택과 굴절』, 서울 : 역사문제연구소.
- (1995). "북한식 체제의 성격 규정을 위한 연구방법론의 모색", 『통일문제연구』 제23호.
- 김영윤(1994).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비교", 『사회보장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제10권 제2호, 서울 : 한국사회보장학회, 12월호.
- 김영종(1992). "북한의 복지행정정책", 『계간 북한연구』, 서울 : 대륙연구소, 가을호.
- 김영치(1997). 『붕괴위기의 북한 보건의료』, 서울 :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 김용식(1987). 『북한의 의료제도와 보건의 낙후성』, 서울 : 북한연구소.
- 김진수(2002). "남북통일과 사회복지정책", 강욱모 외,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서울 : 청목출판사.
- (1997). "통일에 대비한 공적연금체제에 통합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논문 제30집.
- 김진수 외(1992).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비교연구』,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외(1993). 『남북한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제도 통합방안』,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형식(2000). "남북한 사회복지체제의 비교와 통합모형", 『남북한 교류와 사회복지계의 과제』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 (1992). 『북한 사회복지제도에 관한 연구』 호주 Monach 대학 박사학위논문, (1986), 중앙대학교 사회복지과(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김형식·김연명(1995). "통일국가의 사회복지", 『한반도 통일국가의 체제구상』, 서울: 한겨레신문사.
- 나병균(1997). "통일한국의 사회복지제도 정립방안", 『97통일논총』, 서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노용환·연하청(1997). 『북한의 주민 생활보장정책 평가』,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용환(1998). "통일한국의 사회복지정책 기본추진방향",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7호,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997). "통일후 북한지역 주민의 생활보호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3호,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도홍렬(1992). "북한의 사회문제와 사회정책 전망", 『통일문제연구』, 제4권 3호, 서울: 통일원.
- (1990). "남북한 복지정책 비교", 『민족지성』, 서울: 민족지성, 4월호.
- 문옥륜 외(2001). 『북한의 보건의료제도의 운용』, 서울: 아주남북한보건의료연구소.
- 문옥륜(1990). "북한의 보건의료" 강정구 외, 『북한의 사회』, 서울: 을류문화사.
- (1989). 『북한의 보건의료제도 분석』, 서울: 통일원.
- 박길준(1972). 『북한사회제도의 법적구조 분석: 사회보장입법 중심으로』, 서울: 국토통일원.
- 박동운(1972). 『남북접촉에 즈음한 남북한 사회복지정책의 이념 및 기조에 관한 고찰』, 서울: 국토통일원.
- 박명림(1995). "냉전의 해체와 북한연구: 시각·이론·해석의 문제", 『창작과 비평』 제89호, 서울: 창작과 비평사, 가을호.
- 박순성(1994). 『통일한국 사회복지정책』,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 박종삼 외(1997). "사회정책 측면에서 본 남북한 삶의 질 비교분석",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제33호, 서울: 나눔.
- 박종삼 외(1999).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통합복지모델 연구", 『사회복지정책』, 제8집, 서울: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박진·이유수(1994). 『남북한 사회복지제도 비교 및 통합방향』,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 박진(1997). 『통일에 대비한 사회정책의 방향과 제시』,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 (1996). 『남북한 경제통합시의 경제사회 안정화 대책』,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 (1994). "통일한국의 소득보장정책과 사회복지제도통합", 한국사회보장학회, 『통일한국의 사회복지정책방향』, 1994년도 하반기 학술발표 논문집, 서울: 한국사회보장학회.
- 변종화 외(1993). 『남북한 보건의료제도 비교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외(1989). 『남북한 보건의료 비교 연구: 북한 실태를 중심으로』, 서울: 국토통일원.
- 서동만(1998). "북한연구에 대한 반성과 과제: 1990년대 연구성과 문제", 『현대 북한연구』, 서울: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창간호.
- 성경룡(1993). "통일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방향", 한국정치학회 편, 『통일한국의 새로운 이념과 질서의 모색』, 제3회 한국정치세계학술대회, 서울: 한국정치학회.
- 성기호(2000). "북한의 의료실태와 의료정책", 『통일경제』, 서울: 현대경제연구원, 8월호.
- 송두울(1995). "북한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역사는 끝났는가』, 서울: 당대, 1995.
- (1995). "북한연구에 있어서 내재적 방법 재론", 『역사비평』 제28호, 서울: 역사비평사, 봄호.

- 안계춘(1989). 『북한주민 생활 실태조사』, 서울:국토통일원.
- 양재모(1972). 『남북한 의료제도의 비교연구』, 서울:국토통일원.
- 오기성(1996). “북한연구에 있어서의 현상학적 방법의 함의(상·하)”, 『북한』 6월·7월호.
- 오정수(2000). “남북교류와 사회복지 공공부문: 전망과 과제”, 『남북한 교류와 사회복지계의 과제』,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 (1996). “해방 50년과 북한의 사회복지”, 『상황과 복지』, 창간호, 서울:인간과 복지.
- (1993). 『남북한 사회정책의 변천의 비교 연구: 국가성격에 기초한 사회정책 변천 동인의 분석』,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1991a). “90년대 남북한관계와 통일정책에 따른 남북한 사회정책의 비교와 전망”, 서울:통일원.
- (1991b). “북한의 사회복지제도: 변동과 전망”, 『계간 북한연구』, 서울:대륙연구소, 겨울호.
- 유인학(1973). 『남북관계 발전에 대처한 사회보장정책의 방향과 단계적 대책』, 서울:국토통일원.
- 이상은(1992). 『남북한 사회복지 비교 연구』, 서울: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종석(1997). “탈냉전기 북한연구의 동향과 과제 : 북한연구의 신지평 시대”, 『한국사론』 제27집.
- (1995). “북한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현대 북한의 이해』, 서울:역사비평사.
- 임재형(1997). 『남북한 통일과정에 있어서의 사회복지제도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 전승렬·박길준(1972). 『남북한 사회보장 정책 및 현황비교 고찰』, 서울:국토통일원.
- 정경배(1994). “통일한국의 사회보장 정책방향”, 한국사회보장학회,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정책방향』, 1994년도 하반기 학술발표 논문집, 서울:한국사회보장학회.
- 정기원·이상현(1992). 『북한 인구의 현황과 전망』, 서울: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기원 외(1995). 『남북한의 인구·보건·사회보장 비교』, 서울: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남훈·노용환(1998). “북한 인구·보건의 정책적함의”,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20호, 서울: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홍식(1999).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복지의 과제”, 이정복 외, 『21세기 민족통일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 서울:서울대학교 출판부.
- 채경석(1999). “북한연구 방법론의 경향변천: 시기별 특성과 문제점”, 『통일연구논집』 제1집 1호, 원광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 최완규(1995). “북한연구 방법론: 연구시각·자료·이론들”, 『계간 북한연구』 서울, 대륙연구소, 봄호.
- 최일섭(1990). “사회복지제도와 운영실태” 최 명외, 『북한개론』, 서울:을류문화사.
- 홍도열(1988). 『남북한 복지정책연구』, 서울:민족지성.
- 홍종득(1993). 『남북한 기본수요 및 사회보장제도의 비교』, 서울:한국개발연구원.
- 홍기준(1999). “통일후 남북한 사회통합-새로운 이론구성을 위한 논의”, 『국제정치논집』 제39집 3호, 서울:한국국제정치학회.
- 황진수(1993). “북한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연구”, 『한성대 북방연구』, 서울:한성대, 1993.